

韓國 프로文學의 比較文學的 研究(I)

—1920年代를 中心으로—

張 師 善*

I. 序

社會主義藝術은 個性을 追求하려는 他藝術을 일축하여 부정한다. 그리고 그들은 “人民性”, “階級性” “黨性”에 基礎를 둔 社會主義리얼리즘의 번영을 위해 戰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하여 武器化되어버린 社會主義藝術은 “思想性” “黨의 藝術政策”으로 인해 그 藝術性이 抹殺되었으며, 그 内容과 形式은 傳達의 道具로 전락했으며, 藝術家는 匠人으로 되어 버렸다.

本稿는 그간 韓國文學史에서 漏落되어 온 프롤레타리아文學을 事實中心으로 補完하여 文學史가 破行을 免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出發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프로文學의 比較文學的 研究가 于先의으로 必要 하리라 짐작되며, 그 基礎作業의 一部를 展開해 보고자 한다.

II. 用語問題

프로文學의 研究에 있어 우선 부딪히는 것은 用語의 問題이다. 이는 韓國文學史 全般의 事情과 無關하지 않다고 본다. 王朝의 名稱이 文學史의 時代區分에 仍用되거나, 지나치게 恣意的인 名稱이 使用되거나, “新”과 같이 相對的인 概念이 濫用되는 것을 적지 않게 보아왔다. “新傾向派”的 名稱도 그 代表的 例가 될 수 있다. 既存 文學史는 “新傾向派”→“프로文學”的 移行을 設定하고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新傾向

* 博士課程(忠北大)

派”라는 用語는 朴英熙에 의해 命名된 후¹⁾ 林和²⁾ 雙樹臺人³⁾ 申南徹⁴⁾ 等에 의해 使用되어 왔으며 現今에도 無批判的으로 慣用되고 있다. 한편, 近來에는 “傾向文學”⁵⁾ “解放文壇”⁶⁾ 等의 用語가 쓰여지기도 하나, 그 妥當性에 있어 懷疑的이며, 實際的 與件에 의해 屈折된 듯한 느낌까지 받게 된다. 特히 “傾向文學”的 境遇는 最近에 와서 그 使用이 擴散될 징후가 보여 再檢討가 要望된다.

“傾向”이란 用語는 1885년 11월 26일 엉겔스가 카우초키에게 보낸 便紙에 등장한다.

“나는 如何한 境遇에도 그러한 것으로서의 傾向藝術의 反對者는 아닙니다. 悲劇의 아버지 아이스카로스와 喜劇의 아버지 아리스토파네스는 다가치 明瞭한 傾向詩人이었으며 단테도 세르판테스도 正히 그러하였고, 실베르의 「狡猾과 戀愛」의 主要한 價値도 그것이 ——最初의 獨逸의 政治的 傾向戲曲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近代의 露西亞及威爾의 作家들은 優秀한 小說을 쓰고 있는데 모두 傾向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傾向이란 것은 特히 그것이야 指示됨이 없이 自然스러운 狀態와 行動에서 流出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 따라서 作家는 그에 依하여 그려져있는 社會의 葛藤의 未來의 歷史的 解決을 既成된 形態로 讀者에게 提供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條件으로서는 小說은 오로지 뿐로조아에게, 다시 말하면 直接 우리한테 屬하지 않는 環境의 讀者에게 向하는 것으로서, 그러므로 社會主義的 傾向小說은 내가 보건만 實際의 諸關係를 誠實히 그림으로써 이들의 諸關係의 本質에 關한 支配的制約的 幻想을 粉碎함으로서, 뿐로조아 世界의 樂

1) 朴英熙「新傾向派의 文學과 그 文壇的地位」〈開闢〉 64號 1925. 12.

朴英熙「新傾向派文學과 無產派의 文學」〈朝鮮之光〉 1927. 2.

2) 林和「平靜한 文壇에 巨彈을 던진 新傾向派」〈朝鮮日報〉 1933. 10. 8.

3) 雙樹臺人「歷史的 反省에의 要望——新傾向派文學」〈朝鮮中央日報〉 1935. 7. 10.

4) 申南徹「最近朝鮮文藝思潮의 變遷——新傾向派의 擾頭와 그 內面的 關聯에 대한 한 개의 素描」〈新東亞〉 1935. 9.

5) 金圓卿「1920年代 傾向文學에 關한 研究」〈論文集〉 6輯 서울敎育大學 1973. 5. 申南鉉「1920年代 韓國傾向小說研究」〈現代文學研究〉 11輯 서울大, 現代文學研究會 1974. 11.

尹弘老「傾向作品論」〈韓國近代小說研究〉 一潮閣 1980.

6) 鄭漢淑「解放文壇史」高大出版部 1980. 4.

天主義를 震憾시킴으로서 現存秩序의 基礎의 不變性에 對한 疏惑을 注入함으로서——設使 作家가 어떤 特定한 解決을 提出하지 않거나 境遇에 따라서는 어느 側에 서지 않드래도 自己의 使命을 完全히 다할 수 있는 것이다.”⁷⁾

本文에서 보듯이 아이스큐로스, 아리스토파네스, 단테, 세르반테스, 실베르 등을 “傾向”的 範疇 안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政治的 倾向戲曲” 또는 “社會主義的 倾向小說”과 같은 冠詞와 더불어 使用하고 있어, “傾向”이란 用語 自體가 近來 韓國에서의 그것보다 포괄적, 내포적임을 알 수 있다.

現行 文學事典類를 들추어 보면, 英美에서 發刊된 경우, “Tendency Literature”的 항목이 나타나지 않으며, 獨逸이나 日本 等地에서 간혹 쓰임을 볼 수 있다. 日本 “研究社” 發行의 〈Dictionary of World Literature〉 (1954)에 의하면 “傾向文學”的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文藝上의 作品이 藝術的 表現을 通해서 宗教上, 道德上, 政治上 또는 社會上의 어떤 思想의 傾向乃至 立場에 關한 自己의 主張을 表明하고, 公衆을 같은 方向으로 誘導하려고 하는 境遇, 그것이 特殊한 倾向을 품고 있는 것으로서 倾向文學이라 불린다.……(中略)…

(2) 도이취文學에서는 中世의 聖職者에 대한 反抗으로서 나타나 있는데 특히 번창했던 것은 啓蒙思潮時代이며 스트립·운트·드람時代의 「群盜」나 青年 도이취派의 政治的 自由를 위한 싸움, 實事主義를 媒介로 하는 政治社會小說, 20 세기에는 新浪漫主義, 表現主義, 新即物主義 및 나치스文學 等은 여기에 속하는 것이다.

亦是 상당히 포괄적임을 알 수 있고, 1920年代 社會主義 倾向의 作品에 대한 “傾向文學”이라는 用語의 使用은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各國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프롤레타리아文學”이란 用語를 그대로 使用하여도 무방하리라 보며, A. Yarmolinsky에 의한,

“프롤레타리아 文學期”

(1917~1928 Social Realism 定立)

7) 朴贊謙譯 〈맑스·엥겔스藝術論〉 서울 建設出版社 1946(?) p.60.

↓
“Social Realism 文學期”

(1928~1948. 8 共產黨 中央委員會가 文學에 대한 規制 發表)

↓
“Communist Realism 文學期”

(1948~現今)⁸⁾

의 方法을 援用하여 프로레타리아文學의 概念을 使用코자 한다. 그리고 “新傾向派”는 “프로文學”的 種概念으로 보고자 하며 “傾向文學”은 그 類概念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아울러 “新傾向派”는 “新小說”에서와 같이 상대적, 일시적인 용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初期프로文學”으로 부르기로 한다.

Ⅲ. 프로文學理論의 發生

이제까지의 文學史 및 批評史에서는 프로文學이 金基鎮의 日本에서의 彷徨과 함께 導入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朴英熙의 後續에 의해 兩者가 開拓해 나간것으로 叙述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는 두 가지 問題點이 있다. 첫째는 이미 그 以前에 民衆意識의 自覺을 同伴한 “新文學” “民衆藝術” “힘의 文學”的 提唱이 이루어지고 있는 點이며, 그들 중 一部가 八峰이나 懐月의 論文보다, 프로文學에 關해 體系的이고, 深度 있는 理論을 提示하고 있는 點이다.

그에 해당하는 努力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例擧될 수 있다.

“우리에게 분석적 문학은 없고 리악이文學(로민스文學) 뿐이다…(中略)…이에 나는 朝鮮 新文學 建設의 急務를 提唱한다”⁹⁾

“어찌한 사람인 무엇이라 하여도 現今의 二十世紀는 民衆時代이다.”

“이러함으로 世界各國이 한 가지로 입을 모아서 民衆劇場과 民衆劇을 부르지

8) A. Yarmolinsky, *Literature under Communism*, New York, Freeport 1969.

9) 石松生「文學과 實生活의 關係를 論하야 朝鮮新文學建設의 急務를 提唱함」 〈東亞日報〉 1920. 4. 20~24.

증이 오래이엇섰다. 記者는 이러한 意味下에서——必要下에서——文化事業의 急先務로 다른 나라 사람의 十倍나 百倍의 以上으로 滿腔의 热誠으로 民衆劇場과 民衆劇을 提唱하는 바이다.”¹⁰⁾

“勞動을 藝術化하라.” “人生을 藝術化하라” “眞正한 民衆藝術은 天下 모든 民衆의 要求하는 것이겠지마는 特히 우리 韓鮮民衆의 要求하는 것이외다” “聰明한 朝鮮의 藝術家는 朝鮮民衆의 生活에 基한 新藝術을 創作하는 者외다”¹¹⁾

그들의 論調가 階級意識과는 거리가 멀고, 때로는 스스로가 이와는 다른다고 叙述하고 있기는 하지만, 不知不識中에 程文學의 前史라고 할 “民衆文學”的 狀況을 演出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石松의 論文은 後에 그의 民衆文學이나 民主文藝에 연결이 되고, 玄哲의 것¹²⁾은, 金億의 「民衆藝術論」¹³⁾의 번역 (〈開闢〉 1922. 8~11)과 同軌에서 理解될 수 있는 것이며, 京西學人(李光洙)의 “新文學”은 「壽」이나 브나르드運動과 關聯함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程文學으로 移行해 가는 어떤 흐름을 把捉할 수 있는 可能性은 있다고 본다. 〈每日申報〉에 실린 「新藝術運動—無產者 文學과 詩人에 就하야—」(1923. 1. 8~9)에서도 當時의 情況을 짚을 수 있다. 그들이 “新”이라는 冠詞를 많이 使用하고 있는 事實단으로도 새로운 意識의 胎動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막연하고 抽象的이던 論調가 任鼎宰의 「文土諸君에게 與하는 一文」(〈開闢〉 37號 및 39號 1923. 7 및 9)이나 林蘆月의 「社會主義와 藝術——新個人主義의 建設을 唱함——」(同 37號 1923. 7)에 이르면 상당히

10) 玄哲「文化事業의 急先務로 民衆劇을 提唱하노라」〈開闢〉 10號 1921. 4.

11) 京西學人「藝術과 人生——新世界와 朝鮮民族의 使命」同 19號 1922. 1.

12) 玄哲은 이 論文에서 恩師였던 島村抱月에게서 恒常 “玄君 자네는 冷落枯調한 朝鮮民族의 內部生活에 기쁨을 차주는 責任이 있는 것을 이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述懷하고 있다. 그런데 이 島村抱月은 日本 自然主義文學의 理論的 指導者였으며 藝術座를 조직하여 近代劇의 大衆的普及에 힘쓴 人物이다. 玄哲은 이러한 影響으로 인해 民衆劇 뿐 아니라 近代文學 全般에 걸친 代表的 轉信者였다. (이에 대해서는 金澤東教授의 「轉信者로서의 玄哲」〈韓國文學의 比較文學的研究〉一潮閣 1972).

13) 金億의 〈民衆藝術論〉 및 日本의 民衆藝術에 관해서는 本稿 Ⅲ의 1項에 詳述되어 있음.

注目할 만한 進展과 變化를 보여 준다.

任은 우선 文學을 自我表現의 一形式이라고 規定한 후 첫째, 個性表現運動 藝術至上主義 즉 쎄잔누, 둘째, 人間的 苦煩과 小自我融化에 在한 대自我表現運動 즉 토르쓰토이, 세째, 現代階級自我의 宣傳의 主義의 表現運動 즉 모리키 등으로 細分하고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그의 理論은 展開된다.

“文藝創作에 對하야서는…(中略)…即 現實의 社會性을 失하야서는 全全無價值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現代的 背景으로 階級意識에 對한 自覺과 人間生活 改善에 第一의 着眼點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 藝術 以外의 모든 現象도 生活의 綜合 即 社會進化에 意義가 있어서야 하며 社會狀態에 依해야 結하야지는 것은 合理 以上의 合理이다. 歷史의 으로 人間의 洞窟에 塹하든 無產階級은 民衆의 自覺으로 只今에서야 階級의 意識으로 反逆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無產階級의 人間이 階級의 으로 自覺上에 立한 것이 現今의 無產階級運動이다. 이 運動 內에 一部인 階級藝術은 慘澹한 生活을 하는 朝鮮文士가 쁘조아 階級及 藝術에 對抗하여 矛盾의 社會現象을 打破하며 新人生의 光明을 袖하려고 하는 것이 彼等의 運動이며 藝術이다. 그리고 이 運動이 얼마나 人間의이며 必然의인 同時に 쁘조와 藝術이 얼마나 虛偽와 不充實과 人間의 으로 墮落된 것을 告人은 指示할 수가 있다.”¹⁴⁾

이미 單純한 民衆意識에서 階級意識으로 移行 增幅된 論理를 發見할 수 있다. 任鼎宰의 論文과 같이 실려 있는 林蘆月의 論文 또한 注目해야할 特性을 지니고 있다.

“藝術은 쁘조아니 또는 푸로니 하는 階級意識을 全려 써나서 人生이 無限히 生活할 自由스러운 世界에만 되겠다. 萬一 赤露國의 現狀과 가티 藝術이 非常히 制限된 勞動文學에서만 發達을 許한다 할진대 當來의 藝術은 一文의 價值도 업시 될 것이다.”

“아——權力的 社會主義를 摧滅하자. 그리고 우리의 人格을 限엄시 擴張하고 個性을 自由롭게 할 新個人主義를 建設하여야만 되겠다.”

14) 任鼎宰「文士諸君에게 與하는 一文」〈開闢〉37號 p.37, p.38 및 39號 p.32.

所謂 人道란 美名下에서 滅亡해 가는 現赤露國의 藝術은 宣傳用의 出版物 떼
계 아모 價值잇는 藝術的 創作이 업계 되였다.”¹⁵⁾

宣傳物의 價值 밖에 없는 藝術을 벗어나 個性을 自由롭게 할 “新個人主義를 建設하고자 하는 非難調의 內容에서, 오히려 프로文學에 대한 深度있는 論理가 展開되고 있어 當時 文壇의 草創期의 特性을 느끼게 된다. 이 論文은 當時 日本에서 起興하던 프로文學의 國內着根을 두려워하여 執筆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或은 當時까지 韓國文壇에 紹介되기始作하던 露西亞文學에 대한 反動일 수도 있겠다.

그 무렵 日本은 이미 民衆藝術論이 評壇의 流行 테에 마가 되어 있었으며, “勞動文學”“第四階級”的 文學 等도 主張되고 있었다.¹⁶⁾

한편, 韓國文壇에는 러시아文學의 紹介가始作되고 있었다. 安自山의 「露西亞文學」(〈我聲〉 1921. 5. 15), 金明植의 「露西亞의 산 文學」(新生活) 1922. 4. 1), 李大偉의 「現代露西亞 文學 中의 厥世主義」(〈青年〉 1923. 1. 1), 筆者未詳의 「新藝術運動—無產者 文學과 詩人에 就하야」(〈每日申報〉 1923. 1. 8~9) 獨笑生의 「勞農露西亞文學의 神에 대한 問題」(〈共榮〉 1923. 6. 20) 等이 프로文學 發生 以前에 나타났던 러시아文學 全般에 關한 紹介이다.¹⁷⁾

이제 남는 問題는 金基鎮의 初期評論과의 比較接續이다. 지금까지 프로文學을 開拓했다고 해서 舉論되던 金의 評論文의 句節들은 다음과 같다.

“힘……이것만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살려 버리는 힘, …文字도 힘이 있어야 한다. 戰爭 속에서 힘을 노래하고 破壞 속에서 靈性의 音樂을 찾어야 하고 建設의 美를 찾어야 한다. 사람들아 봉대와 팽이를 들고 戰線으로

15) 林蘆月「社會主義와 藝術——新個人主義의 建設을 唱함——」同 37號 pp. 22-23.

16) 長谷川 泉〈近代日本文學評論史〉東京 有精堂 1977, pp.46-56.

17) 1924年 以後에도 꾸준히 그리고 점차 많이 紹介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金秉喆〈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乙酉文化社 1975 및 〈韓國近代西洋文學移入史研究(上)〉同 1980.

나서라.”

“生活은 藝術이요, 藝術은 生活이어야 할 것이다. 生活의 藝術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요, 藝術의 生活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책상 앞에서 만들어 낸 藝術은 우리에게 無用한 것이다. …生活은 엄숙한 實在다. 우리는 이 實在 앞에서 눈을 떠야 한다. 手淫文學의 봇대는 잘라 없애야 한다.”

이것은 金基鎮의 최초의 散文인 「Promeneade Sentimental」(〈開闢〉 37號 1923.7)과 「설어지는 조각조각」(〈白潮〉 3號 1923.9) 中에서 金允植敎授¹⁸⁾에 의해 引用된 句節인데 金敎授는 이를 들어 “프로意識 文字化의 始시이며, 전형적인 것”으로 叙述하고 있다. 이는 既存文學史類에서도 大同小異하다.

그러나 이 句節들은前述했던 任鼎宰의 「文士諸君에게 與하는 一文」에 比해 크게 두 가지 點에서 그 depth가 弱하다. 우선 그 內容에 있어, 任의 것이 民衆意識에서 階級意識으로의 移行을 보이고 있으면서 文學의 “社會性” “民衆的 自覺” “階級意識” “불조와 藝術” 等의 用語가 重視되어 나타나고 있는 反面, 金基鎮의 것은 “힘의 文學”만이 반복되어 그 운파이 뚜렷하지 않고, 具體的 方案이나 內容이 提示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形式에 있어, 任의 것이 完全한 批評文으로서의 모습을 갖춘 데 비해 金의 경우는 感想文 段階에 머무르고 있는 점이다. 더구나 任이 文學을 “藝術至上主義”와 “大自我表現運動” “現代階級自我”로 三分한 후 세잔누, 톨스트이, 고리끼 등을 그 代表的 人物로 각各 提示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이론진개를 꾀한 것은 當時로서는 幅闊은 文學理解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비록 任의 論文이 單回性에 그치고, 그가 本格的으로 活動을 한 文士가 아니라는 點이 있기는 하나, 프로文學理論의 發生은 任鼎宰等에게서 論議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다만 〈新生活〉誌의 活動이 앞선 것이라는 點이 問題가 될 수 있겠으나, 〈新生活〉誌의 活動은 思想的 展開로 보아야 할 長하고 文學의인 것

18) 金允植 〈韓國近代文藝批評史研究〉 한얼문고 1973, p.29.

으로 이해되기는 곤란할 듯하다. 또하나 흔히 프로文學의 發生段階에서 언급되는 것이 八峰이 月灘에게 보낸 便紙의 一節이다. 허나 私信이 批評史나 프로文學의 發生에 있어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勿論 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프로文學을 本軌道에서 크게 展開시킨 것은 金基鎮과 朴英熙이지만 이는 別個의 問題이다.

IV. 프로文學理論의 受容

1. 發信者

우리나라 近代初期의 作家들은 별다른 批判 없이 러시아文學을 翻譯·紹介했으며 量에 있어 英·美·獨·佛의 어느 나라보다도 많아 곧 러시아文學과의 直接的 關聯性을 짐작케 한다. 특히 評論에 관한 한, 量과 質에 있어 壓倒的이다. 투르게네프와 고리끼는 그 代表의 人物이며, 프랑스의 를랑 對 바르부스의 論爭과 더불어 프로文學 受容의 가장 主要한 源泉으로 된 듯하다.

우선 투르게네프는 當時 프로文學 뿐 아니라 大多數의 知識人們에게 까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作品翻譯 및 紹介에 관여한 사람도 想涉·懷月·金億·羅彬 等 넓게 分布되어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詩의 境遇는 1920年代에 번역된 40편 중에서 투르게네프가 33편으로 압도적 多數이며 1930年代에도 43편 중 26편이나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⁹⁾ 이것은 곧바로 1920年代 以後의 散文詩 流行과도 直接 關聯되고 있다. 今日 러시아하면, 곧 톨스토이나 도스토예브스키의 이름이 떠올려지고, 투르게네프는 희미하게 되고 말지만, 明治40年～大正初期(1907～1912)의 日本과 1920年代 韓國에서의 투르게네프는 餘他 作家와 比肩되지 않을 정도로 큰 存在였다. 當時 日本에서도 文學青年은 투르게

19) 金秉喆 〈韓國翻譯文學史研究〉 乙酉文化社 1975, p.446.

네프로 들어가서 톨스토이, 도스토예보스키로 나오도록 되어 있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²⁰⁾

톨스토이, 도스토예보스키와 더불어 러시아 3大文豪로 불리는 그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作品번역으로는 러시아작가 중 最多인 듯하다. 1840 ~70년대의 社會問題였던 農奴制, 新舊思想의 葛藤을 主題로 했던 그는 러시아에서 가장 西歐的 色彩가 놓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日本에 있어 투르게네프의 이름이 처음으로 전해졌다고 보여지는 것은 明治 12年(1879) 10月 28일 「朝野新聞」의 論說 가운데에서인 듯하며, 作品 中 가장 먼저 번역된 것은 冷冷亭杏雨 즉 後의 三葉亭四迷의譯인 「父와 子」인듯한데 現傳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²¹⁾

그 후 明治 36年(1903)年頃부터 투르게네프의 作品이 諸雜誌에 실리는 量이 늘었고, 明治40年代는 투르게네프熱이 最高度에 이른 時代였다고 말할 수 있다.²²⁾

1920年代 韓國에 있어서 투르게네프의 紹介文獻 및 飿譯作品 目錄은 다음과 같다.

○紹介文獻 : 吳天園「터-케니프」〈開拓〉 1920. 4. 1 / 玄哲, 「脚本 隔夜」飿譯序 〈開闢〉 1920. 6. 25 / 懶月「準備時代에 있는 짜사로프의 否定的 精神」〈開闢〉, 1925. 12. 1 / 李泰俊 「“그前날밤”의 解題」〈學生〉 1929. 8. 1.

○飿譯作品 : 廉想涉「密會」〈東明〉 1923. 4. 15 / 懶月 「아버지와 아들」〈共濟〉 1924. 4. 1 / 고사리 「Anto」〈靈臺〉 1925. 1. 1 / 譯者未詳 「아버지와

20) 福田光治編 『歐米作家と 日本近代文學』, 東京, 教育出版センター 1974 第3卷 p.46.

以外 日本文學과 투르게네프의 關聯様相은 木村毅「ソグエネフと 日本文壇」(〈砂濱散策〉所收) 및 昇曙夢「日本文學と 露西亞文學」(日本比較文學會編 『比較文學』矢島書房 1953) 등에 詳述되어 있음.

21) Ibid., p.48.

22) 木村毅・齊藤昌共編 『西洋文學飿譯年表』(『世界文學』岩波講座 1933 및 日本國立國會圖書館編 『明治・大正・昭和飿譯文學目錄』1968).

아들(梗)」〈時代日報〉 1925. 12. 27 / 李泰俊「그前날밤」〈學生〉 1929. 8. 1 /
 洪蘭波〈첫사랑〉 韓一書店 1921. 4. 2(初版) 1922. 5. 30(再版) / 詠閑生「어
 버이와 아들」〈每日申報〉 1922. 9. ? ~ 10. 17(16回) / 趙明熙「그전날밤」〈朝
 鮑日報〉 1924. 8. 4 ~ 10. 26(78回) / 崔承一〈봉물결〉 博文書館 1926. 4. 10 /
 趙光春〈蕩魄한處女〉 博文書館 1926. (以上 小說)

三星生「牛르게네 프散文詩의 一節」〈東亞日報〉 1920. 7. 19 / 瞬星「勞動者와 손환사람」〈共濟〉 創刊號 1920. 9. 10 / 億生「明日！ 明日！」外 8篇
 〈創造〉 8號 및 9號 1921. 1. 27 및 1921. 5. 30 / 羅彬「식골」外 13篇 〈白潮〉
 1號 및 2號 1922. 1. 9 및 1922. 5. 22 / 韓秉道「참시」〈青年〉 1923. 5. 1 / 金
 東鎮「勞動者와 손 흰 사람」〈東亞日報〉 1923. 11. 4 / 孫晋泰「거지」外 1
 篇 〈金星〉 3號 1924. 5. 25 / 馬丁「會話」〈東亞日報〉 1924. 6. 30 / 曹圭善
 「會話」〈新生〉 1929. 4. 1 / 田致采「乞人」〈眞生〉 1929. 5. 1 / 譯者未詳「참
 새」〈三千里〉 1929. 6. 12(以上: 詩)

(그 外 評論・其他는 없음)

다음으로 發信者로 들 수 있는 사람이 고리끼이다. 그는 下層生活의
 온갖 職業을 겪은 青少年 時節의 貧窮과 放浪을 作品化한 프를레타리아
 作家로서, 社會主義리얼리즘의 開拓者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韓國에 紹
 介된 것도 日本을 통해서인데 日本에서는 1905~1910년 무렵에 이 作家
 에 대해 絶頂의 關心이 集中되었고, 韓國에는 그 후 1920年 以後에 紹
 介되기 始作한다. 1920年代에 韓國에 있어 고리끼의 紹介文獻 및 翻譯
 作品 目錄은 다음과 같다.

○紹介文獻 : 天園 「꼬르키에 對하여」〈開拓〉 1920. 1. 1 / 孤月 「露文豪
 고리끼—의 略傳」〈新民公論〉 1921. 5. 26 / 辛泰嶽 翻譯 短篇集 〈叛逆者の
 母〉에 실린 「序에 對하여」와 「讀者 여러분」 平文館刊 1924. 1. 18 / 尚火
 「꼬르끼와 그의 作品」〈開闢〉 1926. 1. 1 / 金岸曙「燈下漫筆—作家와 運命」
 〈東亞日報〉 1926. 9. 28 / 星兒(林和)「고리끼의 “彼等의 三人”」〈朝鮮日報〉
 1927. 1. 24 / R.S.K 「世界文豪와 그의 作品—wlki와 “첫 칸슈”」〈朝鮮文壇〉

1927. 2. 1/ 筆者未詳 「삼십오년간 文壇生活 기념 축하회 맥심·뮐키」〈毎日申報〉 1927. 11. 27/ 金醜 「막심·고리—키의 誕生 六十年에 臨하야」〈東亞日報〉 1928. 9. 14~18

○翻譯作品：秦瞬星「意中之人」〈新生活〉 1922. 6. 6/ 玄鎮健「가을의 하로밤」〈新生活〉 1922. 6. 6~9/ 玄鎮健「가을의 하룻밤」〈開闢〉 1922. 7. 20 鄭曉塔「惡魔」〈新民〉 1925. 8. 10/ 青邱「솔개」〈曉鍾〉 1925. 12. 12/ 쇠외「동무」〈開闢〉 1926. 1. 1/ 朴容大「惡魔」〈開闢〉 1926. 7. 1/ 玄州「그의 애인」〈新民〉 1929. 1. 1/ 懷月「그女子와 愛人」〈朝鮮文藝〉 1929. 5. 10/ 瞬星「체르갓슈」〈東亞日報〉 1922. 8. 2~9. 16/ 辛泰懶 〈樂逆者의 母〉 平文館 1924. 1. 18/ (以上 小說)

譯者未詳 「偉大한 作家의 본 偉大한 實行家—고로키의 “래닌”論」〈東明〉 1923. 5. 6~5. 13/ 譯者 未詳 「兩極端의 中間—灰色」〈東明〉 1923. 5. 13 (以上 評論) 그 外 詩는 없음

다음 세번째로 들 수 있는 主要 發信者는 로망·롤랑과 바르뷔스이다. 로망·롤랑은 그의 「民衆藝術論」으로 韓國 프로文學 前史에 큰 끊임을 했으며 바르뷔스는 클라르테運動으로 프로文學 生成에 큰 충격을 주었다. 로망·롤랑은 反戰, 平和主義를 외치고, 비폭력과 혁명의 일치를 회구하여 人類的 立場에 立脚한 國際主義를 主張한 小說家이자 藝術評論家이다. 바르뷔스는 인간 본능의 모습을 赤裸裸하게 描寫하여 학대받은 사람들의 구제할 길 없는 生活狀態를 나타낸 〈地獄〉으로 脚光을 받게 되었고, 좌취계급의 打倒와 戰爭에 끌려 나온 大衆의 노예 근성의 絶滅을 主張한 小說 〈글라르테〉(光明)을 통해 세계평화주의 운동을 전개한 소설가이다. 그의 클라르테運動의 기본은 “光明은 萬人の 것”이다. 大戰 當時에 받은 프랑스國民의 시련은 反軍國主義, 反資本主義, 反國家主義 경향으로 文學을 유도했고 바르뷔스는 그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다. “地獄”에서 “光明”으로! 이것이 그의 文學의 바탕이다.

로망·롤랑의 〈民衆藝術論〉이 韓國에 翻譯된 것은 1922年 8月~11月

金億에 의해 〈開闢〉에 실린 것이었다. 民衆藝術論은 非戰論, 人道主義等의 톨스토이思想의 영향을 받으면서 생겨난 것인데 日本에서는 1916年 8月 〈早稻田文學〉에掲載된 「民衆藝術の意義及び價值」로부터 明確한 모습으로 登場하여 以後 무성한 民衆藝術論의 계기가 된다.²³⁾ 그리고 를랑의 〈民衆藝術論〉이 大杉榮에 의해 1917年 6月 譯出되었다. 아마 金億의 번역은 이의 영향인 듯하다. 이와 같은 民衆藝術論은 하나의 集團의 運動으로 集結되어 日本프로文學의 始發인 種蒔(人)의 發刊(1917)으로 發展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바르뷔스의 클라르테運動은 日本의 경우 오랫동안 프랑스에 潘在하다 갓歸國했던 小牧近江에 의해 紹介되었고, 이의 影響을 받고 日本에서 갓歸國했던 金基鎮에 의해 韓國文壇에 紹介되었다.

1920年代 를랑 및 바르뷔스의 紹介文獻과 飄譯作品 目錄은 다음과 같다.

○紹介文獻：金基鎮「클라르테運動의 世界化」〈開闢〉 39號 1923. 9 / 同「파르뷰스對 로맨·로란의 爭論」同 40號 1923. 10 / 同「또다시 “클라르테”에 對하야」同 41號 1923. 11 / I.K.P「로맨·로—란」〈朝鮮文壇〉 1926. 5. 1 / S生「로맨·로란」〈朝鮮文藝〉 1929. 5. 13 /

○作品翻譯으로는 上記 金億의 「民衆藝術論」〈開闢〉 26~29호, 1922. 7~11과 八峰이 빠르뷰스의 「宿命」을 〈開闢〉 1926. 7에 번역해 놓은 것뿐인듯하고 金基鎮의 上記 紹介文獻 中에 兩者の 論爭文이 譯出되어 있다.

이들 투르게네프, 고리끼, 를랑, 바르뷔스 외에 루나찰스키, 플레하노프, 프리체, 平林初之輔, 青野季吉, 中野重治, 藏原惟人 등은 프로文學中期以後의 發信者이므로 後稿를 期約한다.

2. 受信者

23) 蟻川 讀「ロマン・ロラン」福田光治編 Op. cit. 2卷 pp.238~240 및 長谷川泉 Op. cit. pp.47-50.

受信者の研究에서는 上記 프로文學의 發生과 關聯하여 言及된 任鼎宰, 林蘆月 等에 關한 探索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兩者 모두 本格的으로 文學活動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人物의 傳記的인 事項에 대해서 별다른 言及을 發見 못해 次後 研究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이다. 따라서 金基鎮과 朴英熙를 中心으로 檢討해 보고자 한다.

우선 金基鎮은 그의 最初의 文學活動이라고 할 수 있는 感想文 形態의 「Promeneade Sentimental」이나 「마음의 廢墟」等에서부터 투르게네프의 〈處女地〉와 바르뷔스의 〈클라르테〉, 中西伊之助의 〈너희들의 등뒤에서〉의 귀절들을 引用하고 있으며, 이들의 영향이 가장 커음을 스스로 叙述하고 있다.

“투르게네프를 읽어보기 시작한 때부터는 투르게네프가 내 마음에 가장 친근하게 존경할 수 있는 사람처럼 느끼어졌다. 그래서 입센 쪽으로 가까히 갈가? 투르게네프 쪽으로 가까이 갈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는 아무래도 투르게네프가 더 가까운 것 같아 느꼈다. 이것이 내 나이 일아홉부터 스무살까지의 일이었다.”²⁴⁾

“그 때가 일본서는 社會主義思想이 팽창하기 시작하던 때였고, 勞動組合運動이 自然化하던 때였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라는 일본 잡지에 로망률랑과 양리·발류스의 四回에 걸친 論爭文이 번역·발표된 것을 보고서 나는 단연코 발류스편을 나의 立場으로 택했었다. 그리고서 발류스의 「클라르테」를 읽고 또 「地獄」을 읽고서 완전히 그에게 공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무렵에 中西伊之助의 「너희들의 背後에서」와 「堵土에 삭트는 것」이라는 두 개의 소설에서도 크게 차극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²⁵⁾

“지금 생각해 보면 대 「붉은 쥐」라는 것은 빠르뷔스의 思考와 表現을 내가 追從하였던 것이 아니었던가 싶다. 그리고 그 다음 해 「개벽」에다 발표하였다가 판매금지를 당한 것이 「Trick」이라는 것이었는데 아마 이것은 투르게네프의 觀照의 대도를 내가 모방한 것이 아니었던가 싶다.”²⁶⁾

그外 金基鎮에게 영향을 주었던 發信者로는 印度 女詩人 사로지니 나

24) 金八峰 「투르게네프와 빠르뷔스」 〈思想界〉 1958. 5. p.38.

25) 金八峰 「初創期에 參加한 늦동이」 〈世代〉 1964. 7. p.172.

26) 金八峰 Loc., Cit. p. 39.

이두, 日本의 石川啄木 等이 追加될 수 있다. 그런데 石川啄木은 二葉亭四迷를 通해 투르게네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²⁷⁾ 轉身者로서도 重要視될 수 있다.

다음 朴英熙의 境遇, 理論批評이 勝했기 때문에 實踐批評을 주로 했던 金基鎮에 비해 受信者로서의 모습은 보다 鮮明하게 나타난다. 그는 初期에는 와일드나 시먼즈를 받아 들이려는 唯美主義的인 傾向을 보이지만, 곧 투나찰스키, 프리체, 마르크스, 레닌, 엥겔스, 그로세 等의 社會科學的 傾向으로의 변모를 나타낸다. 그 分岐點은 아마 1924年 2月 〈開闢〉에 發表된 「체홉戯曲에 나타난 露西亞 幻滅期의 苦痛」인 듯하다. 金允植 教授에 의하면

“회월이 재크런던, 골드워이, 임센 等의 소설을 읽고 번역하기도 했으며, 러시아 新進作家集인 「Flying Osip」(Neo York版 1925)을 읽었고, 투르게네프의 「연기」「處女地」「父子」 따위도 英譯으로 읽었음이 分明”²⁸⁾

하다고 한다. 또한 懷月 自信이 “유물철학이나 〈資本論〉에 대하여는 거친 칠·팔년의 세월을 허비하여 나로서는 대개는 읽고 연구하여 본 것”이라고 告白하고 있을 정도로 社會科學 理論의 影響이 컷음을 짐작할 수 있고, 이러한 까닭에 그의 評論은 論理化되었고 그는 觀念論者처럼 認識되었다. 懷月이 受信者로 보다는 오히려 轉信者로 더 두드러지는 것도 이 事實과 關聯지어 說明될 수 있다.

프로文學 理論의 受信者로는 八峰, 懷月 以外에도 林和, 金南天, 安含光, 韓曉, 金斗鎔 等 많은 批評家들이 言及되어야 할 것이나 亦是 本稿의 범위 밖이므로 後稿를 期約한다.

3. 轉信者

ㄱ. 個人的 媒介者

個性的 媒介者로서는 亦是 金基鎮과 朴英熙가 指摘되어야 하겠고, 그

27) 吉田孤羊「啄木と シルゲネーフ」〈文學〉岩波書店, 1971.4.

28) 金允植「懷月 朴英熙研究」〈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科學編 第七輯 1968.12 p.196.

外 文學史에서 言及되지 않았던 金體이나 毒人 등이 轉信者로서 적지 않은 활동을 하고 있고, 金億 等도 여기에 포함된다.

八峰의 「클라르테」의 紹介와 岸曙의 「民衆藝術論」은 프로文學形成에 根幹을 이루었으나, 그 후 轉信者로서의 活躍은 드물다.

이에 비해 懶月은 오히려 轉信者로서 더욱 重要視되어야 하겠다. 1924年 2月 〈開闢〉誌에 「체호프戲曲에 나타난 露西亞幻滅期의 苦痛」을 出發點으로 하여 「惡의 花」를 심은 쏘드레르論」(〈開闢〉 48號, 1924. 6), 「朝鮮을 지나가는 베니스」(同 54號 1924. 12), 「準備時代에 있는 빠사로푸의 否定的 精神」(同 64號, 1925. 12) 「藝術과 社會生活」(〈朝鮮之光〉 67號 1927. 5) 「文藝意識構成과 階級文學의 進出」(同 68號 1927. 6) 「藝術運動의 目的意識論」(同 69號 1927. 7) 「메시아思想의 社會經濟的 基礎」(同 83~84號, 1929. 2~3) 「辨證法의 第二命題와 그 發展過程」(同 87號 1929. 10) 「文藝批評의 形式派와 胡斯主義」(〈朝鮮文壇〉 1927. 4) 等이 1929年末까지 發表된 그의 轉信的 活動들이다.

또한 懶月은 투르게네프小說 「아버지와 아들」(〈共濟〉 1924. 4)과 고리끼의 「그 女子와 愛人」(〈朝鮮文藝〉 1929. 5) 및 에르센코의 童話 「문어지령으로 쌓는 塔」(〈新女性〉 1925. 11~1926. 1) 「호랑이의 吟」(同 1926. 3~4) 等도 번역하고 있다.

다음 轉信者에서 言及되어야 할 사람은 金體과 毒人이다. 金體은 KAPF의 發起 構成員이었으며²⁹⁾ (1925年 8月), 또한 海外文學研究會의 제1차 構成員(1926年 가을 東京)이기도 하였다. KAPF와 海外文學派의 교차지역이 그의 활동영역이었던 듯하다. KAPF에서의 그의 活動은 分明치 않으나 東京外國語大에 在學 中 참가했던 海外文學研究會에서는, 체포드의 戲曲 「未婚」을 〈海外文學〉 創刊號(1927. 1 서울)에, 치홍의 戲曲 「白鳥의 노래」를 同誌 2號(1927. 7)에 각각 譯出하는 等의 활발한 모습을 보여 준다. 그후 그는 계속하여 「舊新露西亞의 社會性과 文學의 傾

29) 金允植 〈韓國近代文藝批評史研究〉 한일문고 1973. p. 11 및 p. 149.

向」(〈朝鮮之光〉 1927. 9), 「나의 보는 바 靈西亞文學」(〈朝鮮日報〉 1927. 11. 9~13)「靈西亞文學에 대한 小考」(〈朝鮮之光〉 1928. 2.) 等과 「막심 · 고리一キー의 誕生六十年에 임하야」(〈東亞日報〉 1928. 9. 14~18)와 「人間 막심 · 폴리키」(〈中外日報〉 1930. 3. 2~6) 등을 發表한 바 있다. 毒人은 本名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勞農露西亞의 詩壇」(〈中外日報〉 1927. 11. 7~26(10회)), 「勞農露西亞文學史一時代의 發達과 思想的 傾向一」(〈中外日報〉 1927. 12. 16~30) 「革命的 不安期의 勞農露西亞文學史」(同 1928. 2. 9~15) 「現露西亞文人」(〈朝鮮日報〉 1928. 2. 17~23. 6回) 등의 활약을 하고 있다. 이들 두 사람의 활동은 주로 러시아文學 全般에 관한 紹介이다. 이 以外 轉信者로서는 日本에 있어 러시아 문학의 번역 을 담당했던 昇曙夢, 米川正夫, 中村白葉등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ㄴ. 媒介的 環境

媒介의 環境에서 우선적으로 言及되어야 할 것은 물론 19C末부터의 日本文壇 自體이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雜誌를 中心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開闢〉이 問題되지 않을 수 없다. 프로文學 理論形成에 가장 큰 役割을 했었는데, 同誌에 실린 “評論 60餘篇 中에서도 50餘篇이 傾向文學의 理論을 싣고 있거나 그 基準에서 作品評을 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報告가 있다.³⁰⁾ “〈開闢〉은 우리나라 新文學史上 가장 權威있는 代表的 綜合雜誌로서 우리에게 文化的으로 思想的으로 그단치 큰 影響을 준 雜誌는 일찌기 없었다.”³¹⁾

다음 〈朝鮮之光〉을 들 수 있다. 이는 1922. 11 創刊되어 M.L黨機關紙로 李星泰에 의해 發刊되었다. 60餘號까지는 週報였고 그후 日刊이 되었으나 언제 폐간되었는지 確實하지 않다. 現在 金根洙氏 等에 의해 100

30) 金圓卿 「1920年代 傾向文學에 關한 研究——〈開闢〉誌를 通한 擻頃顛末을 中心으로——」〈論文集〉 서울數大 6輯 1973. 5. p.71.

31) 金根洙 「〈開闢〉誌 小敘」〈韓國雜誌概觀 및 號別總目次〉 中央大. 韓國學研究所 1973, pp.279-283.

號(1932.2)까지의 散發的인 目次가 수집되어 있다. 특히 프로文學이 本軌道에 오른 이후 프로文學의 機關誌의 役割을 한다.

그外 〈文藝運動〉 〈藝術運動〉 〈第三戰線〉 〈朝鮮文藝〉 等의 雜誌와, 八峰, 懷月이 社會部, 文藝部를 맡고 있던 〈朝鮮中央日報〉(1931.11.27 이후 〈朝鮮中央日報〉), 〈朝鮮日報〉 等의 新聞도 轉信의 環境으로서 重要한 意味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日本프로文學의 實質的인 出發로 看做되는 雜誌 〈種蒔く人〉이다. 이는 “바르뷔스의 영향을 받고 歸國한 小牧近江이 大正10年(1921年) 2月 秋田縣土崎에서 내놓은 同人雜誌(3號로 終)의 發展인데, 十月에 東京에서 나왔다. 歷史的 役割을 한 것은 이 제 2 차 〈種蒔く人〉쪽이다. 이것은 反戰인터내셔널의 作家 바르뷔스의 클라르테運動을 日本에 移入한 것인데 戰爭의 위협과 싸우기 위해 인텔리가 思想의 인터내셔널에 서 풍차야 한다고 主張했다”³²⁾ 한편 “〈種蒔く人〉는 무엇보다는 文學·藝術의 歷史性 및 階級性의 問題를 究明하는 것에 의해, 이미 數年前부터 自然發生的으로 형성되어 온 勞動文學, 第四階級의 藝術에 프로레타리아文學(藝術)으로서의 理論的인 基礎를 주어”³³⁾ 自覺的인 文學運動의 主導力으로서의 役割을 했었다.

이러한 韓·日의 雜誌 以外에 RAPF, NAPF, KAPF와 같은 文學團體나, 日本文壇, 日本書籍 等도 媒介의 環境으로 研究되어지야 할 部分들이다.

V. 結　　語

프로文學研究에 앞서 우선 부딪히는 問題는 用語問題와 프로文學의範圍問題이다. 우선 用語에 있어, 恣意의이거나 相對的인 概念이 仍用

32) 長谷川 泉 Op. cit. p.52.

33) 山田清三郎 〈프로레타리아文學史〉(上) 東京, 理論社 1969. p.317.

되는 것은 文學研究나 文學史 그 自體를 혼들리게 할 수도 있다. 用語의 問題는 곧 時代區分의 問題와 結付되고, 時代區分은 文學史의 終結點일 수 있기 때문이다. “新傾向流”나 “傾向文學”(Tendency Literature)이란 用語는 그 代表的인 例이다. 前者는 相對的이기 때문에, 後者는 概念把握이 안 된 채 쓰인 까닭에 改稱되어야 할 所地가 있다고 본다. 특히 後者는 最近 그 使用이 擴散될 기미가 보이는데, 엥겔스가 카우츠키에게 보낸 便紙에서 등장할 때 이미 포괄적인 개념이었을 뿐 아니라, 外國에서도 널리 쓰여지지는 않고 있다. 從來 使用되어 왔던 “프롤레타리아 文學”이 무난할 듯하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프롤레타리아文學期→소시얼·리얼리즘文學期→카뮤니스트·리얼리즘文學期”的 移行過程을 導入해 보고자 한다.

다음, 프로文學의 범위 및 概念規定 問題이다. 우선 韓國 프로文學理論의 起點을 金基鎮이나 朴英熙에게서 찾으려 하기보다는 任鼎宰에게서 찾는 것이 보다 쉽고,妥當할 듯하다. 이 問題는 金基鎮의 最初의 批評活動이라고 할 1923年 7月 <開闢>誌에 發表된 「Promeneade Sentimental」과, 同誌 同月號 및 9月號에 發表된 任鼎宰의 「文士諸君에게 與하는 一文」으로 縮少되어 論議될 수 있다. 前者が “힘의 文學”에 머무르고 있는 데 比해, 後자는 “社會性” “階級” “民衆” “불조와” 等의 用語를 바탕으로 고리끼를 내세우는 등 既存文學에 대한 克服意志를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前者は 感想文 段階에 머무르고 있으나, 後자는 體系를 갖춘 批評文으로서의 모습을 지녀, 內容 및 形式 모두 後者が 重要視되어야 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프로文學理論의 發生과 아울러 重視되어야 할 것은 民衆概念을 中心으로 한 프로文學 前史가 이미 構築되어 있었다는 事實이다.

韓國初期프로文學 理論受容에 있어 主要 發信者로는 두르게네프, 고리케, 로망·롤랑 및 바르뷔스를 우선 들 수 있다. 두르게네프는 비단 프로文學 뿐 아니라 大多數의 知識人們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그의 영향권은 톨스토이나 도스또예브스키의 그것을 능가했던 것 같다. 고리끼는 “프로레타리아作家 또는 社會主義리얼리즘의 開拓者”로서 韓國프로文學 發信의 中心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대한 關心이 日本에서는 1905~1910年 무렵 그 결정이었고, 韓國에서는 1920年以後에 紹介되기 始作한다. 롤랑과 바르뷔스는 個人的으로 뿐 아니라, 兩者 사이의 論爭으로도 충격을 주었다. 롤랑의 民衆藝術論은 프로文學前史의 主要 理論이었으며, 바르뷔스의 클라르테運動은 金基鎮의 바탕을 이루는 要素가 되었다. 그리고 兩者의 論爭은, 프랑스→小牧近江→金基鎮의 經路를 통해 日本 및 韓國프로文學 形成의 直接的 契機가 되었다.

프로文學 開拓의 意義를 받아왔던 金基鎮이나 朴英熙 等은 受信者로 뿐만 아니라 轉信者로도 많은 活動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轉信者로서는 金體과 毒人이 列舉될 수 있다. 金體의 活動領域은 KAPF와 海外文學派의 交叉地域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毒人과 더불어 러시아文學全般의 紹介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媒介的 環境에 대한 考察에 있어서는 〈開闢〉〈朝鮮之光〉 日本의 〈種蒔〈人〉〉 等의 雜誌와 RAPF, NAPF, KAPF 等의 文學團體 뿐 아니라, 當時의 日本文壇 自體에 대한 比較文學의 接近이 있어야 하리라 본다.

本稿는 筆者の 便宜上 初期프로文學만을 絶斷해 내었고 따라서 未決問題가 많으며 그 分岐點이 不分明하나, 量에 있어 补完될 豫定이다.